

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헌혈행사 실시

윤 차진형기자 | 승인 2025.03.13 17:19 | 10면

혈액 수급난 해소 직원들 따뜻한 생명나눔 동참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는 13일 김해 대표명소 수로왕릉 앞 광장에서 경남혈액원과 협업해 '생명나눔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서정훈)는 13일 김해 대표명소 수로왕릉 앞 광장에서 경남혈액원과 협업해 '생명나눔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단체 헌혈 신청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적십자 경남혈액원에서 지사 가까이 헌혈버스를 제공해 총 21명의 직원들이 헌혈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로 수혈가능 인구가 줄어들며 수혈용 혈액 부족이 지속되는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고자 실시됐으며 대한적십자 경남혈액원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됐다.

김대환 농지은행관리부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오고 있는 헌혈행사를 앞으로도 정기 추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정훈 지사장은 "농업 대표기관으로서 앞장서 헌혈에 참여하게 되어 의미가 깊

다”며 “업무로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헌혈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차진형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진형기자